

# 충북균형발전소식

2022년 1월호 e-letter

발행인 원광희 발행처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043-220-1190, 220-1194 www.balance.chungbuk.go.kr

## 중앙정부 정책동향

###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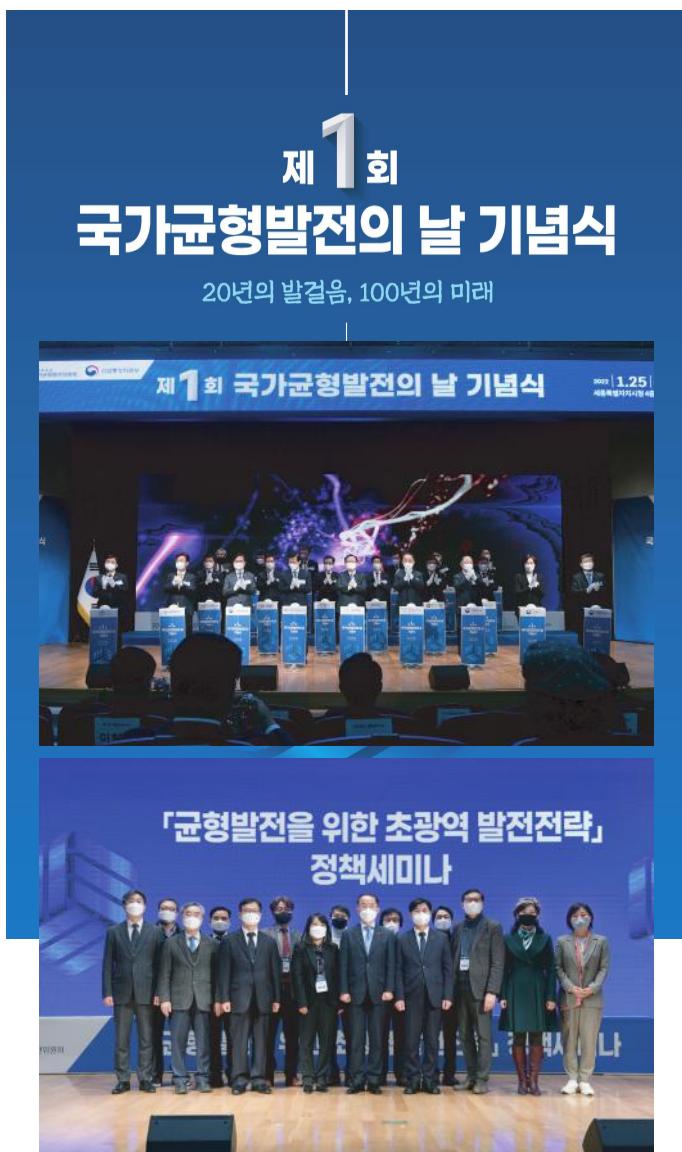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식을 지난 1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개최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1월 29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04.0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이번에 개최된 기념식은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周年인 올해에는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보고,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균형위와 산자부는 연계행사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이라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의 계기를 제공했다.



##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 전국 8개소 확정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8개 지자체가 확정됐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부처 사업을 기본모델\*로 하여 마을개발·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일자리·지역역량강화 등 관련부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해수부)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난 2021년 4월 농산어촌의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 등을 거쳐 첫 대상지를 확정하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소의 사업유형은 주거플랫폼(국토부) 4개소, 농촌협약(농식품부) 3개소, 어촌뉴딜(해수부) 2개소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개소, 경남 3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등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과 더불어 다수의 부처 연계사업(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문제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이외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평가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균형위는 시범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과 압축성장·과밀에 따른 도시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밝혀 앞으로 변화될 농산어촌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시군		사업테마
계		8개 사업
충북(3)	영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주거·농촌</li> <li>- 3up, 삶·쉼·일 영동유토피아</li> </ul>
	옥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주거</li> <li>-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활성화 도모</li> </ul>
	과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농촌</li> <li>- 도농복합형 생태·힐링의 유토피아</li> </ul>
전남(1)	진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어촌</li> <li>- 삶 속 쉼, 힐링과 여유가 함께하는 신토피아</li> </ul>
경북(1)	의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주거</li> <li>-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스토피아 의성</li> </ul>
경남(3)	밀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농촌</li> <li>- 행복수요를 총족시키는 도농 균형 발전 밀양 농촌 유토피아 구현</li> </ul>
	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주거</li> <li>- 새로운 사람들과 즐겁게 함께 사는 농촌 유토피아 함양 실현</li> </ul>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모델 : 어촌</li> <li>- 산업화 속 청정 오아시스 네이처피아 연막마을</li> </ul>



## 충북의 대응방안

###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추진, 3,806억원 전폭 지원!

충북도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본격화됐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단계(2017~2021) 3,257억원 대비 550억원(17%)이 증액된 3,806억원(도 1,905, 시·군 1,901)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불균형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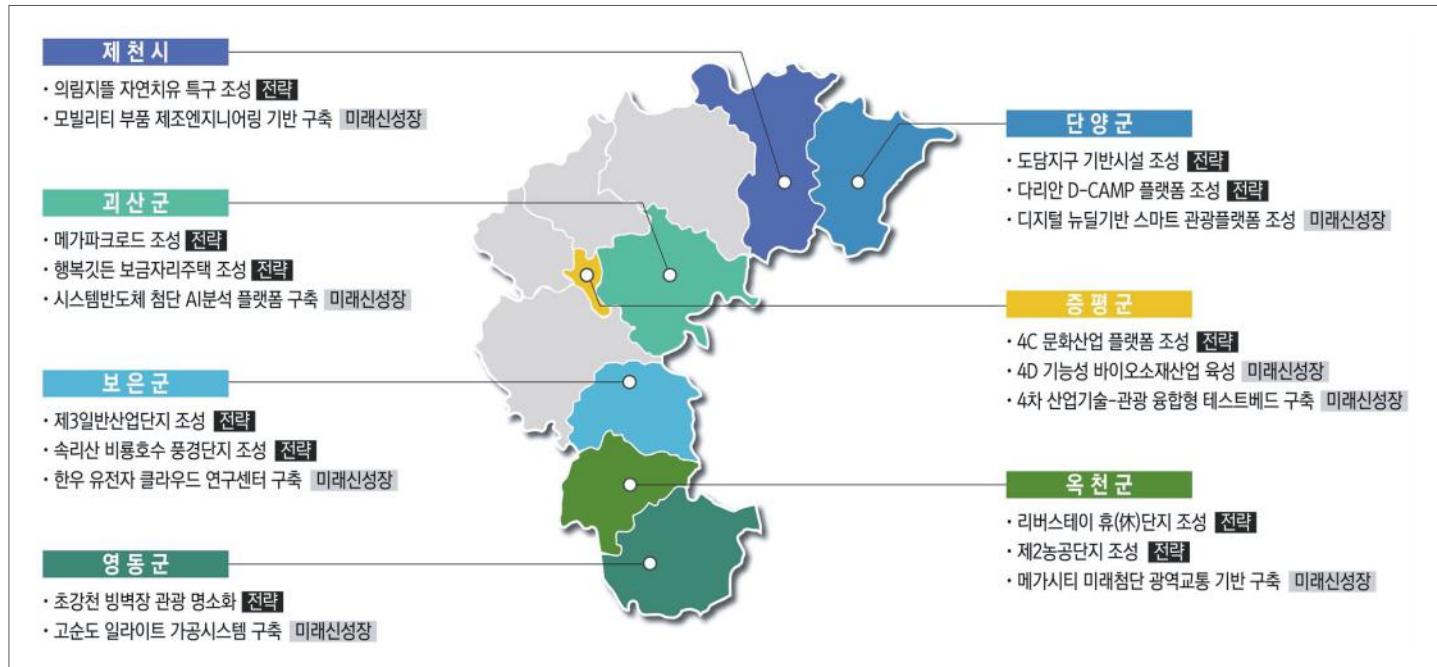
주요사업은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인구감소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중장기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반조성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4단계부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2월부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각 지역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실무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총 19건(전략 11, 미래신성장동력 8)의 사업을 발굴했다.

4단계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1차연도(2022)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로 15년차에 접어든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단순히 5년짜리 사업이 아닌 지역의 핵심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전국적인 수벌사례로 위상이 더해져 타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의 100년 미래먹거리의 기반을 다지게 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새로운 시작, 네 번째로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출처 : 지역발전연구센터 내부자료

## 충북형 지역뉴딜 추진 1주년… ‘지역균형뉴딜 2.0’으로 새롭게 출발

충청북도는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이하 충북형 뉴딜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뉴딜’을 발표·추진했으며, 1여년간의 충북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42개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499억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뉴딜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될 충북형 뉴딜 2.0은 기존의 디지털, 그린, 휴먼, 공간뉴딜 4대 분야\*로 종전 체계를 유지했다.

### \* [디지털 뉴딜]

- 도 전략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및 디지털 기반 초혁신 신산업 육성
- 사회 인프라·전통산업 전반으로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 [그린 뉴딜]

- 탄소중립과 연계한 에너지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 분산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생활환경 기반 조성

### [휴먼 뉴딜]

-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세대 지원 및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돌봄·교육 등 불평등 해소

### [공간 뉴딜]

- 수도권과 경부축에 치우쳐 있는 국토발전 무게중심의 균형축 형성
- 과학기술기반 미래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선도공간 창출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은 ‘한국판 뉴딜 2.0’ 체계로 정부와의 협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평행을 유지하고, 공간뉴딜은 수도권·경부축에 대응하는 ‘신성장축 건설’과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혁신공간 창출을 내용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2대 전략, 29개 과제(신설), 256개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7조 5,217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존 뉴딜보다 72개 사업, 5조 9,49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1년여 간 추진한 뉴딜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디지털·그린 강도(強道)로 도약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충청북도는 글로벌 경쟁과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충북형 뉴딜 2.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 분	기 존
사 업 수	184개 사업
사 업 비	11조 5,718억원
추 진 전 략	디 지 텔
	① 스마트산업 시스템 강화 ② 신성장산업 고도화 ③ 기술혁신체계 구축
	그 린
	① 스마트 물관리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구축 ③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창출
▶	휴 먼
	① 사회 안전망 강화 ②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	공 간
	① 도로·철도 등 SOC 확충 ② 균형발전 공간 네트워크 구축

뉴딜 2.0
256개 사업(72개 ↑)
17조 5,217억원(5조 9,499억 ↑)
①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산업 육성 ② DNA 융합 및 초연결산업 강화 ③ 스마트SOC 및 안전인프라 구축 ④ ICT융복합 제조·서비스·농축산업 스마트화
①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 ② 친환경에너지 전환 ③ 기후변화대응 그린생태계 회복 ④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① 청년 맞춤형 지원 및 혁신인재 양성 ② 취약계층 격차해소
① 균형발전 견인 신성장축 건설 ② 과학기술 혁신공간 조성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

01

###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 누적 이용객 300만 돌파!

대한민국 관광1번지, 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있는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누적 방문객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200만 이용객 달성을 이후 약 1년 6개월만의 성과로 세부 시설별로 살펴보면, 만학천봉 전망대 257만명, 알파인 코스터 25만명, 짚와이어 1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단양군의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시설로서 지난 2017년 7월 13일 개장이후 2020년 12월까지 311만 여명이 다녀갔으며, 150억원의 관광수입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만천하 모노레일은 개장 7개월 만에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안심 관광지로 거듭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 2회 선정(2019, 2021)에 빛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충청권 최초로 ‘2019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두었다. 이러한 수상 배경에는 전망대, 짚 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등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에게 골라 타는 재미를 줄 수 있는 복합형 레저파크로 변신을 거듭한 것으로 꼽힌다.

올해 초에는 지역관광의 대들보 역할을 할 단양관광공사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및 향상된 고객서비스 제공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출처

- 각 시·군별 홈페이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http://www.balance.go.kr))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2.01.01.~22.01.28.)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http://www.chungbuk.go.kr))



출처 : 단양관광공사 홈페이지([www.dytco.or.kr](http://www.dytco.or.kr))